

Korean Continu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Transcript

Familiarisation Text

FEMALE: 오늘 미술반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9학년 모두는 학교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종이접기를 했어요.

MALE: 재미있었겠어요. 우리 10학년 반은 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춥고 비가 와서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옷이 비에 젖어서 아주 추웠어요.

Question 1

MALE: 어디 가세요?

FEMALE: 버스터미널이요.

MALE: 동서울 터미널이요? 아니면 강남 터미널이요?

FEMALE: 동서울 버스터미널로 가 주세요.

MALE: 어디에서 세워드릴까요?

FEMALE: 버스표 파는 곳에서 내리고 싶어요. 아, 참! 우선 쇼핑을 해야 하는데, 동서울 터미널 쇼핑센터 앞에서 세워 주세요.

MALE: 네, 알겠습니다.

Question 2

MALE: 드디어 내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드니에 오신다! 알고 있지?

FEMALE: 응, 오빠. 몇 시 비행기야?

MALE: 아침 7시 25분. 네가 공항에 갈 수 있어?

FEMALE: 갈 수 있어. 오빠는 같이 안 가?

MALE: 미안... 나는 내일 아침에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

FEMALE: 알았어. 혼자 갈게. 그런데 내일 저녁에 무슨 요리를 할까?

MALE: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스테이크 어때?

FEMALE: 아주 좋아!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아보카도 샐러드도 만들까?

MALE: 그래. 좋아.

Question 3

Sound effect: beep sound from telephone answering machine

FEMALE: 미나야, 오늘 엄마가 집에 늦게 돌아갈 거야. 너 다음 주에 수학 시험 있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수학 공부를 꼭 해야 한다. 한 시간만 공부해. 그 후에 꽃집에 가서 꽃 좀 사 올래? 이모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내일 아침에 꽃을 가지고 이모를 보러 가자. 돈은 식탁 위에 있어. 참, 수학 공부하기 전에 고양이한테 밥을 줘야 해. 그런데 우유는 주지 마. 알았지?

Question 4

MALE: 어머니, 돈 오백만 원 빌려 주세요.

FEMALE: 뭐? 오백만 원? 왜?

MALE: 차를 꼭 사고 싶어요.

FEMALE: 자동차? 글썄... 안 돼. 너한테 너무 큰 돈이야.

MALE: 어머니, 제가 작년에 컴퓨터 살 때 돈 빌리고 다시 돌려드렸지요?

FEMALE: 그랬지...

MALE: 또 지난 삼월에 여행 갈 때 돈 빌리고, 다시 갚았지요?

FEMALE: 그랬지, 그런데... 오백만 원은 좀...

MALE: 어머니, 저 자신 있어요. 돈 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집안일도 하고, 어머니 옷 가게에서 일도 돕고, 음... 동생들 숙제도 도와줬어요.

FEMALE: 맞아, 우리 아들이 최고야.

MALE: 그럼요, 어머니. 오백만 원을 일 년 동안 빌려주세요. 일 년 후에 육백만 원을 드리겠어요.

FEMALE: 육백만 원?

MALE: 네, 자신 있어요. 저도 좋고, 어머니도 돈 벌어서 좋고.

FEMALE: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Question 5

MALE: 네? 오늘 저녁 식사 예약이 안 됐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FEMALE: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저녁 6 시입니다.

MALE: 그럴 리가 없는데...

FEMALE: 저, 다음 손님이 기다리시는데... 잠깐만... 다음 손님!

MALE: 아니, 여기 이메일 좀 보세요. 오늘 6 시 예약, 맞지요?

FEMALE: 아,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MALE: 아니... 뭐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 생일인데, 이게 뭐니까?

FEMALE: 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손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 레스토랑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MALE: 우아, 애들아. 저기 좀 봐! 여기 아주 좋다. 한강도 보이고 63 빌딩도 보여.

FEMALE: 손님께서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MALE: 네, 감사합니다.

Question 6

FEMALE: 찬수 씨, 태즈메이니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다음 달에 회사 사람들하고 가는데, 같이 갈래요?

MALE: 소미 씨,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FEMALE: 말도 안 돼요. 찬수 씨 돈 많잖아요.

MALE: 지난달에 제가 집을 샀잖아요. 잊었어요?

FEMALE: 그럼, 친구한테 빌리세요. 제가 돈 빌려 줄게요.

MALE: 고맙지만, 친구한테 돈 빌리기 싫어요. 게다가, 회사를 쉴 수 없어요.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너무 바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어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FEMALE: 잘됐네요. 그래도 휴가는 있겠지요?

MALE: 글썽요... 그리고 새집으로 이사할 때, 강아지도 두 마리 샀어요.

FEMALE: 그래요?

MALE: 제가 여행을 가면 강아지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어요. 또, 새집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안 끝나요.

FEMALE: 찬수 씨, 이번 여행은 같이 못 가겠네요.

Question 7

MALE: 요즘 호주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무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직업을 구했을까요?

우선,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지만, 한국어를 못해서 호주로 돌아갑니다. 영어, 한국어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 나라말을 하면 직업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영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는 호주에 있을 때 한국 회사에서 일 년 동안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인턴십 경험은 한국에서 이력서를 쓸 때 좋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무엇이 어려울까요? 저는 존댓말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존댓말은 중요한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 선배, 어른을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8

FEMALE: 그린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를 3년 전에 졸업했어요. 지금 법대에 다녀요. 여러분, HSC 때문에 힘들어요? 12 학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첫째, 친구하고 함께 공부하세요. 저는 11학년 때 혼자 공부했어요. 과목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12학년 때 친구들과하고 스터디그룹을 했어요. 시험도 잘 봤어요.

둘째, 취미 생활을 하세요.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공부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음악 감상을 해 보세요.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가족하고 등산을 갔어요.

셋째, 자원봉사를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저는 12학년 때 친구하고 어린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어요. 아주 즐거웠어요.

자, 여러분, 힘내세요!